

내년이면 꼭 차는데... 자연장지 조성 난항

한울누리공원 만장 앞뒤 제주시, 동부공설묘지에 자연장지 추가 조성 추진
국비 28억 확보 못해 '발목' 공원내 여유부지 활용 검토



장묘문화의 빠른 변화로 자연장지인 제주한울누리공원 이용이 급증하면서 2012년 개장한 지 10년도 안돼 내년에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가 자연장지인 제주한울누리공원의 내년 만장을 앞두고 용강동 소재 동부공설묘지에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하려던 계획이 국비 확보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자연장지가 추가 조성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쯤이면 자연장지 이용이 사실상 중단될 상황으로, 시는 최종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한울누리공원 여유부지에 2000~3000기 규모의 자연장지 조성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21일 제주시에서 따르면 2021년 정부 가내 예산에 동부공설묘지에 자연장지 추가 조성을 위한 예산 28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올해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자연장지 추가 조성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복지부도 공감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에는 지속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

입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신규사업 예산이 막힌 것이다. 총 1만7151기를 안장할 수 있는 한울누리공원은 8월까지 안장률이 90.1%(1만5459기)다. 연간 안장 규모가 2017년 2612기, 2018년 2096기, 2019년 2306기, 윤달이 낀 올해는 8월까지 2805기가 안장돼 내년 중반쯤 만장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울누리공원은 제주시가 2009년부터 무연고 묘역을 재개발해 2012년 4월 개장했다. 당시만 해도 매장

문화가 여전히 화장률이 54.8%(2011년 기준) 수준이어서, 노인회와 마을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그 후 이용객이 점차 늘면서 조성 당시 30년쯤 예상했던 사용기간은 10년도 못채우게 됐다. 2019년 도내 화장률은 73.5%다.

시가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하려는 부지인 동부공설묘지는 여승생공설묘지 포화에 대비해 2011년 준공한 곳이다. 8만8463㎡에 63억원을 들여 7931기를 매장(봉분) 또는 평장으

로 안장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는데, 매장 감소 추세와 맞물려 현재까지 단 한 개의 묘도 들어서지 않아 사실상 공한지나 다름없는 상태다. 반면 총 3765기 매장 규모의 여승생공설묘지는 앞으로 489기가 매장 가능한 상태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21기가 매장된 반면, 188기가 개장신고하면서 갈수록 빈 밭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화장을 상습과 자연장지 이용 증가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부공설묘지에 주차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과 재해영향평가를 마치고 12월엔 공동묘지에서 장사시설로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했다. 올해는 3월 복지부에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에는 공유재산심의도 마쳤는데 총 사업비 40억원 중 28억원의 국비 확보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막판까지 자연장지 추가조성을 위한 내년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한울누리공원 여유부지에 2000~3000기 규모의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해 내년 만장에 대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halla.com

기준 없이 소속 선수 보수 깎고 물품관리·장비대여도 제멋대로

도장애인체육회 종합 감사

제주도장애인체육회가 물품관리와 경기용 장비 대여, 선수단 반복 구매 등을 제멋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선수에 대한 연봉제를 적용하지 않아 보수를 적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절한 업무사태 10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조치와 함께 보조금 1340만원 반납 등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 도장애인체육회는 2017년부터 감사가 이뤄진 지난 7월까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해야 하지만 3억8000만원 상당의 물품 44개를 구매했음에도 물품관리대장에는 단 한건도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체결을 통해 대여해야 하는 1억 6000만원 상당의 경기용 장비 84종을

무상으로 가맹단체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단 반복 구매도 입찰공고 과정에서 정량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정성적 평가 점수만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다수 업체를 입찰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장애인체육회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 근거 없이 400만원 상당의 순금열쇠를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아울러 소속 선수에 대한 연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선수당 연간 120만원에서 600만원 적게 지급하며 스포츠단 운영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감사위원회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주관광공사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한다. 재정운영 상황, 기금 등 예산집행 상황, 면세점 운영 등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가을 수놓는 코스모스. 관광객들이 21일 가을의 정령인 코스모스꽃이 활짝 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를 찾아 완연해진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도, 추석 맞아 특별 감찰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특별감찰에 나선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청렴 제주 실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6개 감찰반(30명)을 편성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감찰은 추석을 맞아 귀향객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응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감찰 사항은 ▷공직자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장을 방치한 사적 업무, 당직근무자 근무 소홀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공직자 갑질 및 무책임·소극적 업무 추진 행위 ▷민원업무 처리 지체 ▷공직자 품위 훼손 등이다. 도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신분상 엄중 문책과 함께 사안에 따라 부서장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오은지기자

갈길 먼 렌터카 총량제, 결국 2년 더

도, 감차량 목표치 밀돌아 적정 대수 분석·계획 마련

제주도내 도심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렌터카 수급 조절 총량제(이하 렌터카 총량제)가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일부 업체가 이에 동참하지 않은데다 감차에 따른 법적 소송으로 번지면서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9월 21일부터 2년간 시행한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 (이하 렌터카 수급

조절 총량제) 조치를 2022년 9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당초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5000대로 추산, 지난해 6월까지 7000대가량을 감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한 지난 2년간 3000여대를 줄이는 데 그치면서 총량제 시행에 따른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처럼 도는 그동안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렌터카 감차 정책에 불참하는 등 반발해 기대만큼 감차 효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

다. 여기에 시행 전인 2018년 4월 제주에서 성업 중인 2개 업체가 신청한 렌터카 증차 요청을 거부했다가 업체가 제기한 증차 거부 취소 소송에 휘말렸고 최근 행정당국이 패소했다.

도는 이번에 재추진하는 렌터카 총량제로 감차 효과를 얻기 위해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 조절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재분석하고,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감차 계획을 다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렌터카 적정치가 몇 대인지 다시 분석하고,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렌터카 감차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제주대 비대면 수업 연장

제주대학교는 9월 1~19일로 예정됐던 비대면 수업기간을 코로나19 여파로 10월 24일까지 5주 연장 운영하고 있다. 제주대는 비대면 수업이 곤란한

교과목에 대해선 생활방역 준수 여건이 가능한 강의실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대면 수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은 자체 분반이나 수강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25명 미만 소규모로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것도 허용한다.

제주대는 대면 수업 교과목 중 '비대면수업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선 비대면 수업을 허용한다고 했다. 이 경우 비대면 수업은 담당교수와 협의해 진행토록 했고 비대면 수업 신청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제주 최초

LG Z:In 창호천시장 오라점 오픈

최고의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 책임시공, 철저한 사후관리를 저희 한진시스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신축공사(주택, 상가) 맞춤형 창호제안, 설계 지원

리모델링 공사 상담 환영!!

2층 Ora & Coffee 오픈!

미세방출량
원래 두께 두께(40배)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한 미세먼지

1급발암물질 미세먼지
집이나 직장 내에 머무르는 시간은 90% 이상
환기를 안 하면 실내보다 2~5배 오염물질 발생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없음
절대적인 한진시스템 필요

SOLUTION
자연환기가 가능한 JB나노방진필터

【침투 가능한 먼지 크기】
5-10μm
2-5μm
1-2μm
0.1-1μm

● 머리카버(50-70μm) ● 미세먼지(10μm) ● 초미세먼지(2.5μm이하)

당신을 위한 창호 전문 상담

1F: 전시장
2F: 카페 내부

LG하우시스 제주대리점
· 시스템창호 · PVC창호 · A·L·유리

제주특별자치 제주 2015-07-05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주)한진시스템 TEL.711-5169

제주시 아연로 175(오라이동)

KCTV 우정골프연습장
해역사 곤드레집